

光日春秋



박 천 역  
SK오션플랜트 고문  
전 해군 제독

2026년도 신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이 되는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수도권 집중이 효율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 위기의 국면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싼 첨단기술 경쟁은 국가 간 격차를 빠르게 벌리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국제 질서의 변화와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은 상시적인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술, 경제, 외교, 안보가 분리되지 않은 채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도전의 시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

기 고



안 도 결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위원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 코스피 개장 46년 만의 뜻깊은 성과다. 이는 단순한 지수 돌파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경제 침체와 시장 불신을 딛고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국면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제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구호에 불과하다” “현실을 모르는 숫자 놀음이다” “불가능한 목표로 기대만 키운다”며 비아냥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했다.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기 전에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원칙으로 실행하느냐의 차이가 만들어낸 괄목

종교칼럼



최 현 열  
광주 순교회 담임목사

2026년이라는 하얀 도화지를 받아 든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거창했던 새해 계획은 일상의 무게에 눌러 희미해졌고 우리 마음의 백지에는 이미 실패의 낙서들이 어지럽게 그려진 듯하다. 하지만 1월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겪는 이 막막함과 자괴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내 힘으로 인생을 완벽하게 그려내야 한다는 창조의 고뇌속에 갇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작년 한 시상식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이찬혁의 ‘종말론’과 화사의 ‘Good Goodbye’는 이 막막한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뜻밖의 자유를 제안한다. 이찬혁은 종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경쾌하게 풀어내며 세상의 끝을 직시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해방감을 노래한다. 반면 화사는 이별이라는 인간적인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히 수용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

이 두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자유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나를 억누르는 세상의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국가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축이다

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한 성장 구조는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지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할 때 국가 전체의 회복력도 강화된다. 균형발전은 분배의 논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각 지역은 이미 저마다의 고유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수도권은 첨단 연구와 금융,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서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고, 중부권은 제조와 물류, 교통의 결절점으로 국가 산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떠받칠 수 있다. 호남권은 농생명과의 신재생에너지, 대경권은 기계·부품과 첨단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발전이 가능하다. 강원과 제주, 전북 등은 환경과 관광, 미래형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남부권 해양수도라는 하나의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조선과 해양산업, 수산업, 항만과 물류, 해양 에너지와 방위 산업이 집적된 남부권은 해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산업과 해양안보, 환경을 함께 아우르는 발전 모델을 보여준다.

특히 이 지역에는 주요 해군 작전기지와 정비·교육 인프라 등 국가 해군 전략자산이 집중되어 있어 민간 해양산업과 국가 안보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해양수도 구상은 단순한 산업 집적을 넘어 해양을 매개로 한 국가 역량의 입체적 결합을 의미한다.

해양력은 단순한 군사력의 다른 표현이 아니다. 미국 등 해양 선진국들이 보여주듯 해군력을 기반으로 조선 기술과 해양플랜트 산업, 항만 운영 능력, 친환경 해양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해군은 해양력의 중심축이며 산업과 기술, 환경 정책은 그 위에 구축되는 국가 역량이다.

남부권 해양수도는 이러한 해양력의 복합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력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전략이 아니라 해양력을 매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 경우 국가 균형발전이 특정 지역의 사례를 넘어 국가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획일화가 아니라 연결이다. 지역마다 다른 산업과 인재,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할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지방은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책임과 권한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

신년사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은 한 곳에 몰아주는 성장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지금 바로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성장축이다.

코스피 5000, 이제부터 자본시장 도약의 시간

할 성과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한국 경제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었다. 성장 둔화와 투자 위축, 자본시장 불신이 겹치며 활력을 잃었고 기업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국민의 자산은 미래가 아닌 불안 속에 머물러야 했다.

코스피 5000 달성으로 이런 흐름을 분명히 되돌려놓았다. 경제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시장의 응답이다. 오랫동안 한국 자본시장을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수익성을 갖추고도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미흡한 주주환원, 느슨한 시장 규율로 인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았다. 주주이익 충실 의무를 제도화해 기업 경영의 기준을 바꾸었고,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 지배구조의 신뢰를 회복했다. 자사주 매각 강제화 등 2단계 자본시장 입법을 통해 기업가치를 왜곡해온 관행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 결과 코스피 5000의 효과는 이미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스피 디스카운트’의 종식과 함께

‘코스피 프리미엄’ 시대의 출발선에 선 것이다.

개인에게는 부동산 일반도의 불안한 자산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고, 기업에게는 정상적인 가치 평가와 투자 여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성장 자금 공급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다.

하지만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도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된 정책들이 같은 방향을 유지하며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코스피 6000, 7000을 넘어 1만 시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시장 규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불공정에는 단호하며, 장기 투자 환경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 기업은 주주와 함께 성장해야 하고 개인은 단기 시세가 아닌 가치에 투자해야 한다.

코스피 5000은 단순 숫자가 아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성과로 보여준 증거, 침체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성장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선언이다.

이제 이 성과에 만족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프리미엄’이 일상이 되는 자본시장으로 완성해 나가야 할 때다.

백지를 다시 마주하는 용기

리고 주어진 한계와 현실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서 5:1)”는 말씀처럼 참된 자유는 세상의 강박이라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피로감도 이와 닮아 있다. 최근 유행하는 광고 문구 중 “피부가 좋으려면 피부가 좋아야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서늘한 깨달음을 준다. 피부가 좋아지려면 근본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야 하듯 신앙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주변의 노력에만 골몰하곤 한다. 기도의 분량이나 봉사의 횟수라는 화상품으로 영혼의 민낯을 가리려 애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지 번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호세아 6:6, 새번역)”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형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수용하는 인격적 만남에 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세운 계획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맡기는 용기에서 나온다. 이찬혁이 노래한 종말론적 자유는 세상의 집착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며, 화사가 보여준 성숙한 수용은 실패한 나의 모습조차 은혜 안에서 받아들이게 한다. “별지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는 약속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내 삶의 식탁으로 기꺼이 초대하고 수용하는 인격적 사귄 그 자체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의 고뇌가 단순히 고통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티스트가 백지 앞에서 고뇌하는 이유는 그 자유로운 공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열망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다. 1월 한 달간 겪은 시행착오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예술 작품을 빚어가는 과정 중의 거친 스케치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기를 재촉하시는 감독관이 아니라 우리가 고뇌하는 그 백지 옆에서 함께 붓을 잡고 기다리시는 동역자다.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그분의 전능함을 신뢰할 때 고뇌는 비로소 창조의 희열로 바뀐다.

1월 30일,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내 의지로 가득 찼던 밑그림을 지우고 다시금 백지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백지 위에 당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재를 수용하자. 창조의 고뇌가 자유와 맞닿아 있듯 우리의 영적 갈등은 결국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남은 2026년,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에 마음을 두자.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붓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 될 것이다.

社 說

중앙부처 광주·전남 이전 요구 ‘명분 있다’

지역 정치권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다.

혁신도시 시즌 1과 2를 통해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균형발전이란 상징성이 그보다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안에 설마 이런 요구까지 들어있을까 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지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수정된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문체부와 농축식품부를 전남광주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명분도 충분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주도해 온 광주시의 인프라와 문체부의 행정력이 결합한다면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막대한 시너지가 예상된다. 전남은 국내 최대의 농도로 농축식품부가 동지를 볼 경우 현장 중심의 농정 실현과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는 길을 마련하

게 된다.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은 이미 부산에서 실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해수부 이전을 취임 첫 해인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해 현실로 만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도 통합 특별시에 다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도 좋지만 정부 부처 이전을 실현시켜야 한다. 상징성과 효과 면에서 공공기관 이전과는 비교가 안되는 만큼 지역 내 역량을 모두 모아야 할 것이다. 실현까지는 국회 통과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세력이 많을 것이다. 통합 특별시 조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정부의 5급 3특 정책과도 맞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전례도 있다. 좋은 결과를 맺길 기대한다.

방치되는 지자체 금고 내 돈이라면 이럴까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금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자신들의 돈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금고 평균 금리는 각각 2.40%와 2.29%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금리(2.61%)에 못 미쳤다. 전국 1·2위인 인천(4.57%)과 서울(3.45%)에 비하면 2% 이상 금리가 낮았는데 금고 운영의 미숙함과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금고 규모가 각각 8조원과 13조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 차이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될지 짐작이 간다.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금고 운영도 마찬가지다. 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광주 3개 자치구를 제외한 24개가 전국 평균 이자율을 밑돌았다. 2% 초반대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았고 광주

자치구에서도 남구는 서구보다 1% 이상 이자율이 낮았다. 광주 자치구의 경우 기금 규모가 7000~8000억원 수준인데 운영에 따른 수익 차이도 만만치 않다.

우리 지역과 수도권 자치단체의 2%가 넘는 금고 이자율 차이는 자금 운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마인드 차이라고 할 것이다. 내 돈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저금리도 방치할까 싶을 정도다. 물론 자치단체들이 금고를 선정할 때는 금리 외에도 이용 편의성과 관리 능력 등을 본다.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내는 협력사업비가 있고 광주시의 경우 4년 만에 두 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수도권 자치단체라고 협력사업비를 잘 쌓는 것이 아니다. 변명이 될 수 없다.

재정력이 약한 광주·전남 자치단체일수록 금고 운영에 신경을 써야 한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재정력을 키우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無 等 鼓

어렸을 때 다들 ‘요즘 애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어느 시대이건 ‘요즘 애들’은 다른 세대로 통한다. MZ로 표현되는 요즘 애들이자 요즘 선수들은 어떨까.

예전에는 전지훈련을 가면 선배와 후배가 방장, 방출로 룸메이트를 구성했다. 선배의 선택에 따라 후배는 방출 역할을 맡았다. 선배는 하늘이던 시절에는 선배가 불을 끄면 후배도 강제 취침을 해야 했다. 심부름도 후배의 당연한 역할이었다. 하지만 룸메이트 문화도 달라졌다. 요즘 선배들은 오히려 후배들 눈치를 본다고 하소연(?) 한다. 후배들은 일단 편한 토대로 이미 룸메이트를 정해놓는다.

그라운드에서도 요즘 후배들은 할 말은 한다. 광주FC의 최고참이자 주장 안영규도 “요즘 선수들은 다르다”고 말한다. 옛 시대를 산 선배들에겐 놀람기도 하고 부러운 모습이다. 안영규는 “내가 어렸을 때는 긴장하고 겁먹고 시작했다. 요즘 선수들은 무서움 없이 당돌하다. 적응만 하면 더 잘할 것 같다”고 부러움을 이야기했다. 선배들과 지도자 눈치 보느라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기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작은 실수, 작은 플레이에 위축돼 인스가와 선수 생활을 끝낸 사례도 꽤 있었다. 야구에서 흔히 말하는 손이 말린 경우다.

광주FC의 태극 후아헌 동계훈련지에서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요즘 선수들의 ‘질문’이었다. 선수들은 쉬는 시간은 물론 훈련 중에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다. 배태랑 선수나 이정규 감독을 붙잡고 질문하는 어린 선수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예전에는 말뭉치기도 어려웠던 선배들이지만 요즘 선수들에게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동료다. 광주FC의 선수들은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고 선배와 지도자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었다.

당돌하게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는 후배의 용기와 선배들의 포용과 동료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다. 원팀으로, 동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선배들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세심하게 후배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광주FC는 멀리 가는 중이다.

/김여울 디지털·체육부장 wool@